

참여불교운동본부 '현웃 아나바다 운동' 전개

# 북녘에 자비의 옷 보냅니다



참여불교운동본부가 개최한 아나바다장에서 한 어린이가 북한 어린이들에게 보낼 운동화를 혜승 스님에게 전달하고 있다.

북한 어린이들에게 '자비의 통일 신발 보내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 참여불교운동본부(상임의장 혜승)가 부산 불자들의 사랑을 북녘에 전하는 '북한 동포를 돕기 위한 현웃 아나바다 운동'으로 넓혀 나가고 있다.

참여불교운동본부는 1월 10~11일 이틀 동안 부산지역 사찰 및 불교 봉사단체에서 현웃 모으기 '아나바다야개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자'를 열어 300여 상자 분량의 현웃을 수거했다. 초하루 법회를 겸해 열린 현웃 아나바다 운동에

참여한 사찰은 해원정사 동명불원 미륵암 황정사 태종사 선암사 등 사찰 6개와 대한적십자사불교봉사회 등. 부산 해운대구 중1동 미륵암에서 불자 200여명은 10일 오후 그동안 모은 박스 50개 분량의 현웃을 참여불교운동본부에 전달하고 3층 법당에서 특별법회를 가졌다. 11일 오전에는 부산 동명불원 대

## 6개 사찰, 300여 상자분 수거 조선불교도연맹에 전달 계획

웅전에서도 불자 2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북녘 동포 지원을 위한 아나바다 특별 법회를 열었다. 법회에 참석한 참여불교운동본부 임원단과 불자들은 법당에서 손을 맞잡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함께 부르며 평화 통일을 기원하며 행사를 회향했다.

6곳의 사찰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열린 현웃 아나바다 운동 특별법회에는 태종사 조실 도성 스님, 감로사 주지 혜승 스

님 등이 일일판매팀으로 나서, 불자의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북녘동포를 돕는 자비의 마음을 일깨웠다.

이날 북한 동포를 돕겠다는 불자들의 마음은 300 여개의 현웃 박스에 가득 담겼다. 선물로 받은 새 내복을 선풍기 내 놓는 어르신과 한복을 깨끗이 세탁하고 다림질하여 보내는 불자들의 동참이 눈길을 끌었다. 특히 법회에 참여한 사부대중들이 십시일반 모은 500여만 원이 보태져 의미를 더했다.

참여불교운동본부는 현웃 모으기에 많은 불자들이 참여한 것에 힘입어 현웃 모으기 운동을 정기화하고 모은 현웃은 자비의 통일신발과 함께 북한 조선불교도연맹에 전달할 계획이다.

김영 참여불교운동본부 사무처장은 "자비의 아나바다 운동은 부산 불자들과 시민의 마음을 한데 모아 남과 북의 화합과 통일을 열어가는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051)322-7902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news.com

부산 내원암 '쌀 한 톨 모으기 운동' 펼쳐

# 나눔의 情 담아 드려요



내원암 신도들이 정성껏 모은 쌀을 전달하고 있는 도원 스님.

부산 범어사 내원암 신도들이 '쌀 한 톨 모으기 운동'을 벌여 형편이 어려운 농아인 20세대에 쌀을 전달했다.

내원암 원주 도원 스님, 김영수 강승남 보살 등 내원암 신도들은 1월 12일 부산 농아인협회(회장 김경태) 회관에서 쌀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된 쌀은 내원암에 쌀 한 톨 모으기 운동 모금함을 설치해 법회에 올 때마다 모아진 보시금으로 마련됐다.

내원암 신도들이 쌀 전달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미 지난해에도 추석, 협회의 추천을 받은 10세대에 쌀을 전달하는 결실을 맺은 바 있다.

9년 전 수확 봉사활동을 시작하며 부산 농아인협회와 인연을 맺은 도원 스님은 그동안 농아불자회 법회를 매월 두 차례 여는 것을 비롯 농아들을 위한 장학금 지급, 템플스테이, 성지순례 등을 꾸준히 펼쳐왔다.

김영수 보살은 "기도하러 내원암에 왔다가 농아불자들을 처음 만나게 됐다. 대화를 나누지는 못했지만 도원 스님이 그분들이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보고 조금이라도 돕고 싶어 쌀 모으기 운동에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경태 회장은 "농아인들은 겉으로 장애 정도를 알 수 없어 상대적으로 도움을 받기가 어렵다"며 "1천명이 넘는 회원들이 있는 협회지만 후원을 하시는 분이 도원 스님과 내원암 불자들이 유일할 정도로 서고마음이 더욱 크다"고 토로했다.

농아인들과 함께 한라산 등반을 계획 중인 도원 스님은 "농아인들을 위한 법회를 열 수 있는 포교 공간 마련이 급선무"라며 스님들과 불자들의 관심을 호소했다. (051)508-3163 천미희 기자

## "지역 발전 대원력 한 해 되길"



### 부산 불교계 신년하례법회

부산불교연합회(회장 대성)와 부산불교신도회(회장 공병수)는 1월 8일 부산 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에서 2005년 신년하례법회(사진)를 봉행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가르침을 통해 화합과 정진을 서원하고 불법 흥부와 국 태민안을 기원하는 자리로 마련된 이날 신년 하례 법회는 저녁예불, 발원문, 신년 하례, 신년 인사, 신년 비전 동영상,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 동영상 메시지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대성 스님은 법어에서 "수행의 향기, 신심어린 보살행으로 부산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널리 퍼지도록 정진하는 한해가 되어야 한다"고 법문했다.

이에 앞서 공병수 부산불교신도회 회장은 신년 인사를 통해 "불보살님의 가피와 원력으로 APEC이 원만 회향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신년하례 법회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원로회의 수석부의장 지혜 스님,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대성 스님, 현대불교신문 김광삼 사장, 허남식 부산광역시장 등 6백여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부산불교신도회는 이날 행사에서 화합을 사절하고 남아시아 잠사 돕기 모금함을 설치, 행사장 모금 운동을 벌였다. 특히 이번 참사로 가족을 한꺼번에 잃은 재부 스리랑카 노동자인 '그루게' 씨에게 즉석에서 모금된 성금 1백만 원을 전달했다. (051)853-2021 천미희 기자

### 포항시, 종교 지도자들 초청

#### 정시장 "공평무사한 시장" 약속

지난해 시장의 종교편향 문제로 물의를 빚었던 포항시가 올유년 새해를 맞아 지역 종교계 지도자 50여명을 초청, 종교간 화합의 자리를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

포항시가 1월 11일 포항 시그너스 호텔에서 개최한 '2005 종교계지도자 신년 인사회'에는 정장식 포항시장을 비롯해 포항시암연회회장 경천 스님(황해사 주지), 대혜성당의 이경기 신부, 포항시교회연합회 회장 이성희 목사 등 불교, 가톨릭, 개신교계의 지도자들이 모두 참석했다. 이처럼 포항지역 종교계 지도자가 한자리에 모인 것은 초유의 일이다.

정장식 시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종교편향 사태에 대해 한 번 더 사과와 뜻을 밝히고 공평무사하게 시장을 이끌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배지선 기자

### 경남불교합창단의 밤 개최

진주불교회관(이사장 윤대권)은 1월 8일 경남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성도절 기념으로 경남불교합창단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월경사 합창단, 성주사합창단, 정암사합창단, 사천불교연합합창단

등 경남 주요 사찰 합창단의 찬불가 공연과 무천무당, 보리수동산 풍물패 등 다양한 무대가 마련됐다. 천미희 기자

### "겨울학생수련서 지혜 찾자"

해인사는 1월 19~22일까지 3박4일간 겨울 학생 수련법회를 개최한다.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수련법회는 발우공양, 예불 참선, 도량청소 등의 산사체험 외에 금강경 사경, 박물관 견학, 인경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055) 934-3110

해남 미황사도 1월 23~30일까지 중학생을 위한 문화학교를 연다. 미황사 주지 금강 스님의 지도로 한시 문화체험 발우공양 예절 참선 다도 등을 배운다. (061)533-3521 배지선 기자

### 아동학대예방센터 설립 승인

조계종사회복지재단 구미 금오사회복지관(관장 박동은)은 1월 1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경북구미아동학대예방센터' 설립을 승인 받았다.

금오복지관 아동학대예방센터는 지역 구분이 끝난 1월 31일 개소할 예정이며, 구미 지역 거점 센터로서 아동학대 피해사례 접수·관리, 피해 아동의 심리치료를 병행할 예정이다. 김강진 기자

### 15명 목숨구한 故 권오남 보살 조계종 공적상 수상

범어사주지 대성은 1월 16일 설법전에서 열린 일요법회에서 2002년 5월에 발생한 마산 마도장 여관 화재에서 15명의 목숨을 건지고 유독가스에 질식돼 숨진 故 권오남 보살에게 조계종 총무원장 공적상을 수여했다.

화재 발생 당시 여관에서 일하던 권보살은 화재 발생을 가장 먼저 발견하고 곧바로 신고한 후 15명의 투숙객을 대피시켜 목숨을 구했다. 34세 때 남편

을 잃고 2남 1녀와 시어머니를 부양하던 권보살은 경남도지사로부터 장한 어머니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신심이 돈독한 불자였던 권보살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자 시동생인 47살 이복상씨가 3년간의 법정 투쟁 끝에 지난해 12월 10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의사사로 인정받았다. 이에 조계종도 권보살의 신심을 기려 표창패를 수여하게 됐다. 천미희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故 김분선씨 영결식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故 김분선(84보살)의 영결식이 1월 12일 오전 대구 광병원 강당에서 대구지역시민사회단체장으로 치러졌다. 이날 장례식은 김보살의 유족과 정신대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장례식을 마친 뒤 김보살의 운구는 대구시내 중심부를 돌아 고향인 경북 칠곡의 공원묘지에 안장되고, 영정과

위패는 영천 은해사 법당에 모셔졌다.

지난 1922년 경북 칠곡에서 태어난 김보살은 고무공장에 취직해 돈을 벌 수 있다는 일제에 속아 15세부터 7년여 동안 대만 마닐라 등에서 일본군 '위안부' 생활을 해야 했다. 생전에 서울과 일본 등에서 열린 정신대 문제집회와 시위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으며 끝내 일본의 사과나 배상을 받지 못한 채 1월 10일 방광암과 폐암으로 별세했다. 배지선 기자



www.njutcm.co.kr

세계에서 제일 큰 의과대학

# 중국 국립 한의과대학 학생모집

### 1. 남경중의약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 의 학 과	5년 40명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건강진단서 1통(영문) · 대학 졸업자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통(영문)
석 사 과 정	3년 5명	· 입학신청서 1통 · 여권용 사진 10매

### 2. 학교 소개

- 중국 최고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 국제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 3, 제약공장, 교육병원 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식당완비
- 군입대 연기가능
- 인터넷 홈페이지 www.njutcm.edu.cn

### 3. 지원자격

1.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2. 주지스님, 지도교사 추천자

### 4.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05년 1월 31일까지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5. 문의처

- 주 소 : 中國南京 漢中路 282 南京中醫藥大學
- 전 화 : 25-6798167 / 팩스 : 25-6798168
- 한국상담 안내처 : 조계종 심화불교대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 전화 : 02-511-2026~7, 1080 / 팩스 : 511-2028
- 인터넷홈페이지 : www.njutcm.co.kr

### 6. 남경중의약대학 교류 연혁

- 1995년 1월 20일 학장 혜인 스님 남경중의약대학 방문 상호 교류 및 자매결연 협의
- 1995년 7월~2000년 12월 남경중의약대학 박사과정 연수(1차~14차)
- 1995년 8월 19일~8월 25일 남경중의약대학 총장 일행 방한 南京中醫藥大學 漢語 分校 설립, 분교장 취임 이병용(李秉鎔, 한의사) 명예박사학위 취득
- 1995년 10월 25일 남경중의약대학 국제교육학원 교직원 방한 (中國 江蘇省 教育委員會 永鎮, 國際教育學院長 楊公服, 教務處長 惠紀元, 國際交流服務中心 總經理 丁雲南)
- 1996년 8월 21일~8월 30일 남경중의약대학 項平 총장 방한 남경중의약대학 項平 총장 방한
- 1999년 9월 본교 중국어 5명 본과 입학
- 2000년 9월 9일 본교 중국어 11명 본과 입학
- 2000년 11월 11일~11월 17일 남경중의약대학 王玲玲 院長, 徐恒 院長 訪韓
- 2001년 3월 10일 남경중의약대학 28명 본과입학
- 2002년 3월 남경중의약대학 40명 본과입학
- 2003년 3월 남경중의약대학 40명 본과입학
- 2004년 3월 남경중의약대학 40명 본과입학
- 2004년 11월 중국 국가의사고시 7명 합격



남경중의약대학 (南京中醫藥大學)